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 No. 2

세대별 생활수준-정치적 성향 관계와 양극화

조사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5,880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4월 30일~5월 25일(매주 월~금, 단, 공휴일 제외)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1.3\%$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조사기간 내 평균 18%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한겨레>는 2012년 5월 15일자 1면에 “빈곤층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라는 기사를 실었다.¹ 전국 성인 800명 조사 결과, 보수 성향 비중이 주관적 경제수준 중층이나 상층보다 하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골자로 분석한 기사다.

한국갤럽은 2012년 1월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6개월 전 대비 현재 생활형편 평가, 6개월 후 생활형편 전망을 매일 추적 조사해왔다. 매일 6천여명 이상의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월간 통합 지표도 한겨레 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20대에서 60세 이상까지 세대별로 구분해 살펴 보면, 동일 세대 내 생활수준별 정치적 성향 차이보다 세대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수준 하층이 더 보수적’이라는 현상은 세대별, 직업별, 지역별 생활수준 양극화 정도의 차이가 큰 데서 비롯한 착시현상이다.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5월 통합 결과에서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세대별 주관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성향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 양극화 정도를 분석해보았다. 정치적 성향은 지지 정당, 보수-중도-진보 등의 이념 성향 구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현재 우리 국민 지지 열 명 중 세 명은 지지 정당이 없고, 이념 성향에서도 열 명 중 네 명은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모름/응답거절 비율이 항상 20% 미만으로 나타나는 대선 후보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지지도를 정치적 성향 기준으로 삼아 분석했다.

¹ <한겨레>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함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012년 5월 6일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전화 RDD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pm 3.5\%$ 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소득수준, 재산상태에 기초해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6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게 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하층 22.3%, 중층 43.4%, 상층 33.5%였다. → [기사 전문 보기](#)

서민들은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보수 후보인 박근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가?

경제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진보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가진 자에 유리하고, 진보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이해관계만을 따진다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진보의 편에 서야 마땅하다. 물론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의 박근혜-안철수 대선 양자구도 지지도를 보면 박 전 위원장의 지지도가 하층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12년 5월, 하층에서 두 후보 간 차이는 박 전 위원장이 안 원장을 17%포인트 앞선다. 하층은 왜 자신의 이해관계와 달리 보수 후보인 박근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가?

▶ 대선 후보 지지도-양자구도: 박근혜 vs. 안철수 - 생활수준별(단위: %, () 안은 전월 대비 변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월별 전체	박근혜	40	43	43	43	46 (+3)	
	안철수	46	42	42	41	37 (-4)	
주관적 생활 수준별	상+중상	박근혜	39	43	45	46	49 (+3)
		안철수	49	44	42	39	39 (-)
	중	박근혜	41	45	44	44	47 (+3)
		안철수	47	42	41	43	40 (-3)
	중하	박근혜	37	38	41	40	43 (+3)
		안철수	50	46	46	44	40 (-4)
	하	박근혜	44	46	44	45	48 (+3)
		안철수	38	33	36	33	31 (-2)

*월별 유효표본: 1월 6,602명, 2월 6,586명, 3월 7,831명, 4월 6,977명, 5월 5,880명

‘하+중하층’이 ‘상+중상층’의 4배 - 고연령, 농/임/어업, 무직 비중 높아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조사에는 2012년 1월부터 매일 주관적 생활수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게 한 결과, 2012년 5월 기준으로 상 2%, 중상 10%, 중 40%, 중하 29%, 하 17%, 모름/응답거절 2%였다.

상과 중상을 합치면 12%, 하와 중하를 합치면 46%다. 하+중하층이 상+중상층의 4배에 가깝다. 특성별로 보면 서울 지역, 20대, 화이트칼라, 학생에서 생활수준이 높았고 60대 이상 고연령, 농/임/어업 종사자, 무직에서 생활수준이 낮았다. 전자는 진보적 성향, 후자는 보수적 성향을 대표하는 인구특성이다.

▶ 2012년 1~5월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상	1	1	1	1	2
중상	10	11	10	10	10
중	37	39	39	40	40
중하	31	31	31	30	29
하	20	18	18	17	17
모름/무응답	1	1	1	2	3
상+중상	11	12	11	11	12
중	37	39	39	40	40
하+중하	51	48	48	47	46

▶ 2012년 5월 주관적 생활수준-응답자 특성별 (단위: %)

구분		상+중상(a)	중	하+중하(b)	오즈비*(a/b)
5월 전체(5,880명)		12	46	46	25
지역별	서울	15	41	43	34
	인천/경기	11	39	48	24
	강원	7	36	53	14
	대전/충청	11	39	47	22
	광주/전라	11	36	51	21
	대구/경북	11	42	43	26
	부산/울산/경남	11	42	44	26
	제주	6	51	38	15
연령별	19~29세	15	51	33	46
	30대	11	43	45	24
	40대	13	39	47	28
	50대	13	35	50	26
	60대 이상	7	32	55	13
직업별	농/임/어업	5	31	56	9
	자영업	11	38	50	23
	블루칼라	6	33	59	11
	화이트칼라	17	45	37	48
	가정주부	9	39	49	19
	학생	17	52	31	56
	무직/기타	6	33	56	11

*오즈비는 하+중하층 대비 상+중상층 비율, 오즈비=(상+중상)/(하+중하), 작을수록 양극화 의미

하층에서 박 전위원장의 높은 지지도는 고연령대 비중이 크기 때문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차이 없어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1월부터 5월까지 대선 후보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 지지도를 보면, 주관적 생활수준 하층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원장의 지지도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하층에서 박 전 위원장 지지도가 높은 고연령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 2012년 5월 대선 후보 양자구도: 박근혜 vs. 안철수-생활수준별/연령대 구분 (단위: %)

구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안철수
전체		32	51	32	55	43	41	60	25	65	16
주관적 생활 수준별	상+중상	43	46	33	55	47	41	64	24	64	21
	중	31	52	35	54	45	42	61	25	72	14
	중하	32	49	28	59	41	40	57	27	65	16
	하	24	58	35	44	38	40	57	23	59	20

실제로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연령에 따른 지지도 차이가 극명할 뿐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20대와 40대에서는 오히려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박 전 위원장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연령대별 지지도 차이 때문이고, 각 연령대 내에서는 그 차이가 희석되어 없어진다.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학력 등 여러 특성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중 학력은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 지표에서 학력은 따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진학률이 20년 전 30% 미만에서 현재 8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해 중졸 이하에는 장년층이, 대학 재학 이상에는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생활수준은 정치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경제적 하층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아이러니는 인과성이 전혀 없으며 연령대별 지지도 차이와 계층 구조가 서로 섞여서 나온 착시 현상이다.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 하층의 생활수준 전망 낮아

주관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성향의 상관 관계가 낮은 점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갈등이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생활수준 분포에서 상/중상층은 12%, 하/중하층은 46%로 하/중하층이 상/중상층의 4배에 가까운 정도로 소득 분배 불균형이 크다.

하/중하층은 앞으로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그들의 전망대로라면 서민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더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층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활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도 우세한 반면, 하/중하층은 올해 1월부터 계속 생활형편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어떤 계층이 누구를 지지하는가와 상관 없이 이런 양극화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차기 대권을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012년 5월, 6개월 후 생활형편 전망-생활수준별 (단위: %)

구분		더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더 나빠질 것	전망 지표*
전체		19	54	18	101
주관적 생활 수준별	상+중상	26	59	12	114
	중	20	60	14	107
	중하	17	55	22	95
	하	16	40	29	87

*전망 지표=(낙관 비율-비관 비율)+100, 100 이상이면 낙관 우세, 미만이면 비관 우세

▶ 2012년 1~5월, 6개월 후 생활형편 전망 지표 추이-생활수준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97	101	96	99	101
주관적 생활 수준별	상+중상	117	122	115	113	114
	중	108	110	102	106	107
	중하	87	93	89	90	95
	하	82	81	81	88	87

*6개월 후 생활형편 전망 지표=(낙관 비율-비관 비율)+100, 100 이상이면 낙관 우세, 미만이면 비관 우세

작성 2012년 6월 4일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조사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정치지표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휴대전화 RDD 조사) 매일 300명 이상, 매주 1,500명 이상 유효표본(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을 인터뷰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이전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와 블로그(gallupkorea.blogspot.com)에 공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구독 신청](#)하시면 주간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매월 초에는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월간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매월 1~4주 통합 결과를 담은 월간 지표는 유효표본 6,000여명 규모로 전국 8개권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단위에서도 의미 있게 추이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26개 분석 단위 중 강원, 제주 지역, 그리고 농/임/어업 직업군을 제외한 23개 분석 단위의 유효표본은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는 일간, 주간, 월간 정기 지표의 숨은 의미 해석, 장기적 추세, 특정 이슈와 연계한 해석 등을 담은 별도의 분석 리포트입니다.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는 부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